

전등사 (傳燈寺)

김동일 || 방재설비부장 · 소방기술사

경전을 중시하는 “법보(法寶)사찰-합천 해인사”, 참선과 수행을 우선하는 “불보(佛寶)사찰-양산 통도사”, 승려의 양성에 무게를 두는 “승보(僧寶)사찰-순천 송광사(松廣寺)”. 이들을 흔히 삼보사찰(三寶寺刹)이라 부른다. 승보사찰 송광사 절 이름은 조계산의 옛 명칭인 송광산에서 비롯되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산에서 「18공」이 배출되어 불법을 널리 펼 훌륭한 곳이라 하여 그렇게 명명되었다고 한다. 소나무「松」자를 「十八公」으로 파자하고 「廣」자를 불법광포의 뜻으로 해석하면 곧 송광이 된다. 이름에 걸맞게 송광사에서는 효봉, 취봉, 구산, 일각 등 당대의 고승들이 수없이 배출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사찰 가운데에는 그 이름에 관한 전설이나 구전되는 이야기가 많다.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주왕산은 기암괴석이 마치 병풍과 같아서 석병산(石屏山)으로 불려왔으나 통일신라 말부터는 주왕산(周王山)이 되었다.

중국 당나라 덕종 때 후주(後周)의 왕(周王)을 자임하며 반기를 든 주도(周鐵)가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대패하고 신라로 도망 온 뒤 석병산이 매우 험준하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숨어들었으나 당나라 조정의 요청을 받은 신라군에 의해 토벌되고 말았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산을 주왕산으로 불렀으며, 이 산에 있는 대전사와 백련암 또한 주왕의 아들 대전(大典)과 백련(百蓮)이라는 딸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 전한다.

늦가을에 찾아야 제 맛이 난다는 부여의 고란사는 규모는 작지만 역사 속에 외롭게 선 백제의 유적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 절의 이름도 절 뒤편의 암벽에서 자라는 “고란초”에서 유래되었는데, 아름다운 절 이름보다 낙화암의 쓸쓸한 전설이 먼저 떠오르는, 가히 늦가을에 어울리는 절집이다.

경북 군위군과 영천군의 경계에 우뚝 선 화산(華山)에는 인각사가 자리하고 있다. 화산의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마치 상상의 동물 기린을 닮았으며, 절이 들어선 자리가 기린의 뿔에 해당하는 지점이라 하여 인각사(麟角寺)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인각사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입적할 때까지 5년 동안 머물렀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강화도 남쪽 정족산성 자락에 위치한 전등사는 고려 충렬왕의 원비(元妃) 정화궁주(貞和宮主)가 부처님 앞에 불을 밝히는 옥등잔을 헌납한 이후 이름을 고쳐 전등사(傳燈寺)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전등사 대웅전 옆에는 고려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커다란 청동제 수조(水槽)가 있는데 이는 사찰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화수 통으로써, 불이 어는 겨울철에도 사용하기 위하여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덕수궁이나 경복궁 등 조선시대 고궁에서 볼 수 있는 화로형 물항아리(두모)의 예술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옥등잔이 있는 전등사의 수조는 그 실용성 면에서 모름지기 “두모” 이상이었을 성싶다.